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동여편고』 연구

이 기 봉*

A Study on 『Dongyeopyengo』 Hous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Lee, Kibong*

요약: 이 연구에서는 여백에 무수한 교정과 첨가의 흔적이 담겨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동여편고』의 내용을 정리·소개하고, 지리지 편찬 역사에서 차지하는 학술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동여편고』는 순조(재위: 1800~1834) 때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유래 관련 내용을 대폭 삭제하여 편찬되었다. 둘째, 주로 순조 때 『동국문헌비고』의 정보를 중심으로 교정과 첨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셋째, 헌종(재위: 1834~1849) 때도 『증정남한지』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교정과 첨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넷째, 양주의 읍치 이동에 대한 기록과 지리지 전체의 편찬 경향을 통해 볼 때 『동여편고』의 편찬자는 김정호이다. 『동여편고』는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지리학자인 김정호 인생의 초기에 진행된 지리지 편찬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그 동안 자료의 부족으로 주목하지 못했던 1834년 이전의 김정호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다.

주요어: 동여편고,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김정호, 동여도지, 여도비지, 대동지도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organize and introduce 『Dongyeopyengo(東興便攷)』 hous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at contains a limitless number of proofreading and adding marks in the margin of the pages, and to look into the academic value that it has in the history of geography book compilation. In conclusion, first, 『Dongyeopyengo』 was compiled with contents originated from 『Sinjungdonggukyeojisungnam(新增東國輿地勝覽)』 removed, under the reign of King Sunjo(純祖, 1800~1834). Second, mostly under the reign of King Sunjo, 『Dongyeopyengo』 has gone through proofreading and adding process based on information from 『Donggukmooneonbigo(東國文獻備考)』. Third, under the reign of King Heonjong(憲宗, 1834~1849), proofreading and adding work was performed based on various materials including 『Jungjeongnamhanji(重訂南漢志)』. Fourth, the compiler of 『Dongyeopyengo』 is surely Kim Jeong-ho(金正浩), considering documentations on the transfer of central city of Yangju(楊州) and the overall tendency found in geography book compilation. 『Dongyeopyengo』 is an important documentation that depicts the process of geography books that preceded in the early years of his life as the greatest geographer in Korea, and it holds academic values in that it helps us to understand the life of Kim Jeong-ho prior to 1834, to which people has not paid much attention due to the lack of material and documents.

Key Words: Dongyeopyengo, Sinjungdonggukyeojisungnam, Donggukmooneonbig, Kim Jeong-ho, Dongyeodoji, Yeodobigi, Daedongjiji

1. 머리말

우리나라 최대의 고문헌 소장 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 자료의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해 연차적으로 상세한 해설과 이미지를 담은 “선본해제”를 간행해 왔다. 2010년에는 『선본해제 12 - 지리지류-』를 간행하였는데, 상세한 해설의 작성을 위해 여러 전문 연구자들에게 부탁하여 소장 지리지 578종 1,398책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주목해 보아야 할 지리지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중의 하나가 총 115장으로 이루어진 『東興便攷』(청구기호: 한古朝60-75)

1책이었다.

‘東興便攷’란 이름은 內題이며, 책의 표지에는 너무 많아 알아보기 쉽지 않지만 ‘開開淸記’¹⁾라고 추정되는 이름이 적혀 있다. 그리고 『동여편고』의 내용에는 편찬자, 편찬 시기 어느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발행사항 정보는 모두 ‘未詳’으로 되어 있어 주목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내용의 실체를 접하고 나면 범상치 않은 지리지임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모든 여백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추가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으며, 여기저기 원래의 내용을

*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전문원(Old Map Specialis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bong2658@korea.kr)



그림 1. 『동여편고』의 표지와 내제(오른쪽 위)

교정한 흔적을 쉽게 볼 수 있다. 나아가 붉은색을 사용하여 교정한 경우, 교정한 내용을 또 교정한 경우, 쓸 공간이 부족하여 종이를 덧대어 추가하

거나 교정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글씨가 너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거나 흘려 쓴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첫째, 『동여편고』의 편찬자가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비교·검토하였으며 둘째, 한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 첨가·교정했고 셋째, 편찬자의 친필본이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지리지의 편찬에 식견이 있는 편찬자는 조선의 전 역사를 통해 보아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조선의 지리지 편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인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연 『동여편고』의 편찬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동여편고』의 모든 내용을 이미지로 서비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리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다만 여백에 깨알같이 추가한 내용들까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서비스되는 이미지만으로는 연구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귀중본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고서였기 때문에 일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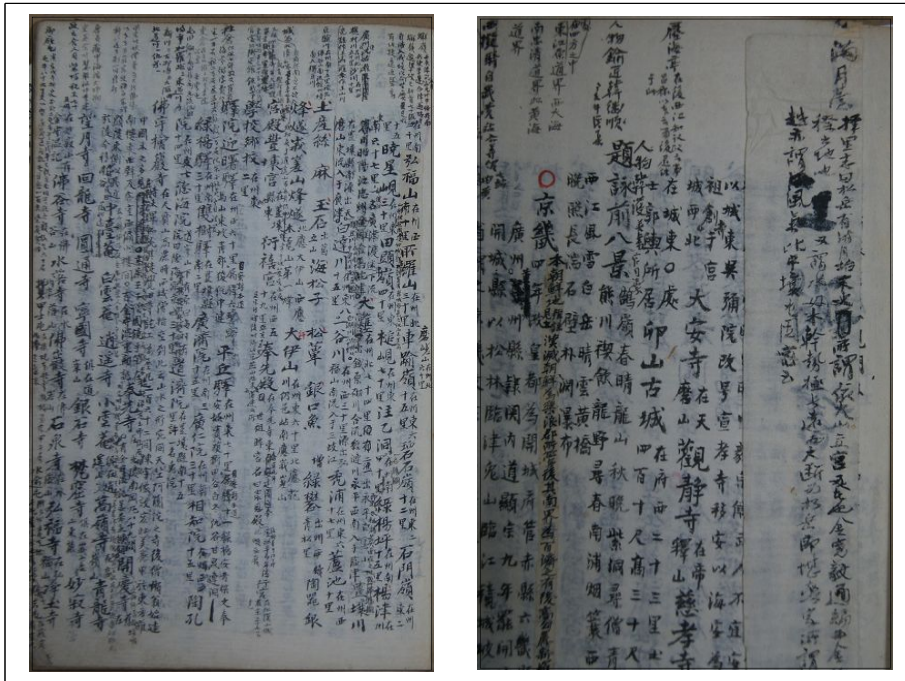


그림 2. 깨알 같은 교정과 첨가 및 종이를 덧댄 부분(오른쪽)

전에 예약하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누구든 이 지리지의 가치에 주목했다면 연구에 제약은 받는 상황은 아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여편고』의 내용을 정리·소개하고, 수록된 내용을 통해 편찬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끝으로 편찬 과정에서의 고민을 분석하여 지리지 편찬 역사에서 차지하는 학술적 가치를 판단해 보고자 한다.

2. 『동여편고』의 기본 구성과 교정·첨가

1) 목차의 구성과 교정

지리지의 가장 앞쪽에 ‘東輿便攷’라는 이름과 함께 목차가 수록되어 있는데, 후에 교정한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다. 京都·漢城府·開城府-京畿-忠淸-慶尙-全羅-黃海-江原-咸鏡-平安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교정하기 전 京都·漢城府·開城府-京畿-忠淸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東輿便攷

京都 漢城府 開城府

京畿 廣州鎮 驪州 利川 楊根 砥平 陰竹 陽智 竹山 果川並屬廣州鎮

水原鎮 富平 南陽 仁川 安山 安城 振威 陽川 龍仁 金浦 衿川 陽城 通津並屬水原鎮 右屬左道

楊州鎮 坡州 高陽 永平 抱川 積城 交河 加平並屬楊州鎮

長湍鎮 江華 豐德 朔寧 麻田 漣川 喬桐並屬長湍鎮 右屬右道

忠淸 忠州鎮 淸風 丹陽 槐山 延豐 陰城 永春 堤川並屬忠州鎮

淸州鎮 天安 沃川 文義 稷山 木川 懷仁 淸安 鎮川 報恩 永同 黃澗 靑山並屬淸州鎮 右屬左道

公州鎮 林川 韓山 全義 定山 恩津 懷德 鎮岑 連山 尼山 扶餘 石城 燕歧並屬公州鎮

洪州鎮 舒川 瑞山 泰安 沔川 溫陽 平澤 鴻山 德山 靑陽 大興 庇仁 藍浦 結城 保寧 牙山 新昌 禮山 海美 唐津並屬洪州鎮 右屬右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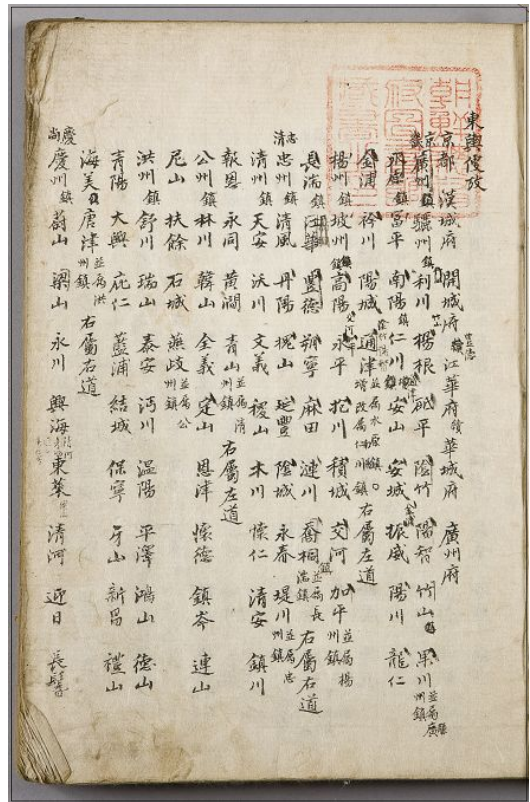


그림 3. 『동여편고』 경도·한성부·개성부-경기-충청의 목차 부분

京都에서 平安까지의 순서, 그리고 각 道의 고을 순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²⁾과 동일하다. 道 아래의 고을 순서는 대규모 외적의 침입에 대해 良人皆兵과 兵農一致를 기초로 하여 지역단위로 방어하도록 편제한 鎭管 체제에 따라 巨鎭을 가장 앞쪽에 썼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고을을 牧-府-郡-縣 등 행정 위계에 따라 순서를 매겨 배치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左右道·東西道·南北道の 구별이 이루어져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에 50권으로 완성되고 1486년·1499년의 수정을 거쳐 1530년에 증보하여 55권 25책으로 완성되는데, 목차의 순서는 이 시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동여편고』의 목차에도 이런 교정의 흔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변화가 심했던 경기도를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

1. 강화부(1627)·화성부(1793)·광주부(1623)가 유수부로 승격된 사실 반영 : 경기에서 강화·수원·광주를 지우고 京都 뒤쪽에 배치함.
 2. 1823년에 豊德이 혁파되어 개성에 합병된 사실 반영 : 풍덕에 새로운 표시를 한 후 개성부에 續이란 글자와 함께 써넣음.
 3. 정조(1776~1800) 때 광주에 있던 巨鎭을 여주로 옮긴 사실 반영 : 驪州 밑에 鎭을 쓰고, 並屬廣州鎭의 광주 옆에 驪州 써넣음.
 4. 여주진관 소속 중 竹山이 1543년 현에서 도호부로 승격한 사실 반영 : 죽산에 새로운 표시를 한 후 이천(도호부) 아래에 竹山을 작은 글씨로 써넣음.
 5. 1526년 수원에 있던 巨鎭을 인천으로 옮겼다가 1535년에 다시 수원으로 옮긴 사실 반영 : 인천에 鎭을 써넣었다가 지움.
 6. 1782년 수원에 있던 巨鎭을 남양으로 옮긴 사실 반영 : 남양에 鎭을 쓰고, 增改屬仁川鎭의 인천 옆에 南陽을 써넣음.
 7. 남양진관 소속 중 通津이 1694년에 현에서 도호부로, 金浦가 1632년에 현에서 군으로 승격된 사실 반영 : 통진과 김포에 새로운 표시를 한 후 인천(도호부) 아래에 작은 글씨로 通津을, 안성(군) 아래에 작은 글씨로 金浦를 써넣음.
 8. 양주진관 소속 중 교하와 가평이 각각 1731년과 1707년에 현에서 군으로 승격된 사실 반영 : 교하와 가평에 새로운 표시를 한 후 고양(군) 아래에 작은 글씨로 交河와 加平을 써넣음.
 9. 1764년 파주에 防營이 설치되어 양주진에 소속되었다가 독자적인 鎭으로 독립한 사실 반영 : 파주 아래에 鎭을 써넣음.
 10. 1633년 교동에 三道統禦營이 설치되어 독자적인 鎭으로 독립한 사실 반영 : 교동 아래에 鎭을 써넣음.
- ※ 陽智와 陰竹도 변화를 주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할 수 없음.

경기도의 경우 풍덕이 혁파되어 개성에 합병된 1823년까지 巨鎭의 이동, 고을의 승격 사실을 모두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1795년 금천에서 시흥으로 고을의 이름이 바뀐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

은데, 금천현의 건치연혁에서는 교정되어 있다.

경기도만큼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았지만 충청·경상·전라·황해·강원·함경·평안에서도 진관 체제의 변화, 고을의 승격과 병합, 새로운 고을의 설치 등이 대부분 교정되어 있다. 이 중 고을의 병합과 관련하여 1600년 전라도의 珍原이 長城에 합해진 사실은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1651년에 牛峯과 江陰이 합해진 황해도의 金川은 교정되어 있다. 새롭게 설치된 고을로는 경상도에서 漆谷(1630)·慈仁(1637)·英陽(1683)·順興(1683), 함경도에서 茂山(1673)·長津(1787)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경기도의 풍덕이 혁파된 1823년보다 1년 빠른 1822년에 새로 설치된 함경도의 厚州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고을의 목차에는 팔도가 모두 수록되어 있지만 『동여편고』에는 경도·한성부·개성부-경기-충청-경상까지만 수록되어 있고, 전라-황해-강원-함경-평안 부분은 없다. 여백에 수많은 교정이 이루어진 점을 통해 볼 때 『동여편고』는 원래 2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1책만 소장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683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없었던 영양 부분이 『동여편고』에는 새로운 종이 위에 기록된 후 끼워져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영양처럼 신설된 경상도의 칠곡·자인·순흥과 함경도의 무산·장진 부분, 고을이 병합된 전라도의 장성과 황해도의 금천 부분도 새로 만들어져 끼워져 있었지만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2) 항목의 기본 구성과 내용

각 부분의 항목 구성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교정하기 전에 썼던 경도·한성부·개성부와 일반 고을의 대표로서 경기도 광주목의 항목 구성을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京都(建置沿革) 國都 城郭 宮闕 壇廟 苑囿 文職
·公署
漢城府(四方境界) 建置沿革 郡名 姓氏 [風俗 形勝] 山川 烽燧 宮室 樓亭 驛院 橋梁 市街 佛宇 祠廟 古跡 [名宦 人物] 題詠

開城府 (四方境界) 建置沿革 郡名 姓氏 風俗 [形勝] 山川 城郭 烽燧 宮室 學校 驛院 橋梁 部坊 公廡 佛宇 祠廟 陵寢 古跡 [名宦 人物] 題詠

廣州牧 (四方境界) 建置沿革 郡名 姓氏 [風俗 形勝] 山川 土產 烽燧 樓亭 學校 驛院 佛宇 祠廟 陵墓 古跡 [名宦 人物 題詠]

※ ()은 항목의 이름은 없지만 내용은 있는 경우
[]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있지만 『동여편고』에는 없는 경우

경도의 경우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여편고』의 항목 구성이 동일하며, 한성부와 개성부의 경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있던 形勝·名宦·人物이 『동여편고』에는 생략되었고, 한성부의 경우 風俗 하나가 더 빠졌다. 경기도 광주목에서는 풍속·형승·명환·인물 항목이 생략되었는데, 題詠이 생략된 것은 한성부·개성부와 다른 점이다. 다른 고을도 광주목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제영 항목이 있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

결국 항목의 구성만 놓고 보면 『동여편고』는 『신

증동국여지승람』의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만 생략하는 방식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일부가 주로 풍속·형승·명환·인물·제영이라는 점이 중요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다.

항목을 구성할 때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고 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은 아니다. 항목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내용의 구성에서 상당히 많은 생략을 하였는데, 항목이 거의 동일한 개성부와 경기도의 광주목에서 나타난 변화를 요약한 것이 <표 1>이다.

개성부와 광주목 모두 각 항목에 큰 글씨로 기록된 기본 내용을 생략한 것은 없다. 다만 작은 글씨로 기록된 세주에서 기문을 포함한 유래와 관련된 내용을 대폭 생략하여 전체의 양을 확실하게 줄였다. 이는 개성부와 광주목만이 아니라 경도·한성부와 모든 고을에서 나타나는 경향이다. 세주에서 절대로 생략하지 않은 것은 위치 정보이며, 기문을 포함한 유래라 하더라도 기본 내용의 이해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부는 생략하지 않았다.

앞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있던 기본 항목 중

표 1. 『동여편고』에서 개성부와 광주목 기본 항목의 내용 변화

항목	변화 내용		항목	변화 내용	
	개성부	광주목		개성부	광주목
(四方境界)	동일	동일	學校	유래 관련 세주 대폭 생략	유래 관련 세주 생략
建置沿革	동일	동일	驛院	유래 관련 세주 대폭 생략	유래 관련 세주 생략
郡名	세주만 생략	동일	橋梁	세주 일부 생략	×
姓氏	동일	동일	部坊	동일	×
風俗	일부 생략	×	公廡	동일	×
山川	유래 관련 세주 대폭 생략	유래 관련 세주 일부 생략	佛宇	유래 관련 세주 대폭 생략	유래 관련 세주 생략
城郭	동일	×	祠廟	세주 일부 생략	동일
土產	×	동일	陵寢(陵墓)	유래 관련 세주 대폭 생략	유래 관련 세주 대폭 생략
烽燧	동일	동일	古跡	유래 관련 세주 대폭 생략	세주 일부 생략
宮室	太平館 세주만 대폭 생략	×	題詠	대폭 생략	×
樓亭	×	세주 대폭 생략			

* '×'는 대상이 아닌 경우임.

풍속·형승·명환·인물·제영 등이 『동여편고』에서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세주에서 기문을 포함한 유래를 대폭 생략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풍속과 형승의 대부분은 유명 인사들의 기문이나 시를 인용한 것이며, 제영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명환과 인물은 해당 고을의 출신자라기보다는 성씨의 본이 해당 고을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이었다.

결국 『동여편고』의 편찬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항목과 내용에 기초를 두면서도 현실의 구체적 이해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내용을 대폭 삭제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기존의 자료를 참조하면서도 수많은 선택이란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고, 『동여편고』의 편찬자가 단순히 기존의 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일부의 편찬 체제만을 다르게 하는 수준의 인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3) 편찬시기

『동여편고』에는 편찬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된 서문이 없어 수록된 내용을 통해 추정해 보는 방법 밖에 없다. 일단 수정이 가해진 여백의 곳곳에서 正宗이란 묘호를 찾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데, 수원도호부(화성부)에 있는 하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正宗 13년(1789)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기고, 광주의 一用(변)·○○(변) 2면을 더해 주었다. (이 때) 현룡원을 (수원에) 遷奉하고 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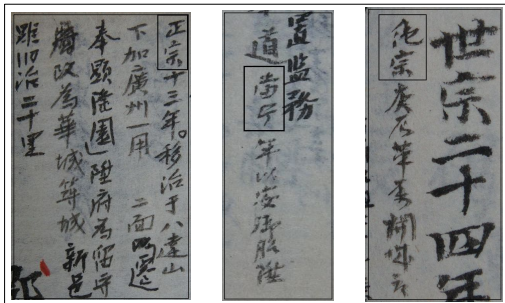


그림 4. '正宗'(수원, 왼쪽) '當寧'(보은, 가운데) '純宗'(풍덕, 오른쪽)

승격시켜 留守를 삼았다. (얼마 안 되어) 화성으로 고쳐 삼아 성곽을 축조하였다. 新邑과 구읍치의 거리는 20리이다. (正宗十三年 移治于八達山下 加廣州一用○○二面 ○遷奉顯隆園 陞府爲留守 ○改爲華城 築城 新邑距旧治二十里)

묘호는 왕이 죽은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여편고』는 아무리 늦어도 정조(재위: 1776~1800) 이후에 편찬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정조 이후 중에서 순조(재위: 1800~1834) 때 기본 항목과 내용의 서술 및 교정·첨가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충청도 보은현의 건치연혁 가장 뒷부분에 '지금 임금 ○년에 御胎를 安置시켰기 때문에 군수로 승격시켰다(當寧○年安御胎陞爲郡守)'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데, 『대동지지』의 보은군 건치연혁에 의하면 순조 때의 사실이다. 경상도 동래현의 위쪽 여백에 '金井山城[當寧甲申置別紼]'란 문구가 첨가되어 있는데, 순조실록 27권의 갑신년인 24년(1824) 8월 10일에 금정산성에 별장을 두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양주목에도 "배봉감목관[지금 임금 초년에 설치했다가 23년에 혁파하였다(拜峯監牧官[當寧初年置 二十三年革罷])"란 문구가 첨가되어 있는데, 『순조실록』 26권 23년(1823) 1월 13일의 기록에 배봉의 감목관을 華陽亭으로 옮기라고 명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³⁾

'當寧(지금 임금)'가 살아 있는 임금의 연도를 기록할 때 쓰는 용어임을 고려하면 앞의 첨가 내용 2개를 통해 순조 때 교정이 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여편고』의 기본 항목과 내용 역시 순조 때 서술된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순조 때 모든 교정과 첨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기록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풍덕군(또는 풍덕도호부)의 건치연혁 가장 뒷부분에 '순종 경진년에 혁파하여 개성에 속하게 했다'고 이른다(純宗庚辰革屬開城云)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순종은 순조를 의미하는데, 순종이란 묘호는 순조가 사망하는 1834년 이후에나 쓸 수 있는 것이므로 순조 이후에도 교정·첨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풍덕이 혁파된 연

도인 경진년은 1820년(순조 20)이 아니라 계미년인 1823년(순조 23)이어서 사실을 잘못 교정하기도 했다.

순조 이후에도 교정·첨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정보는 표지 뒷면의 참고문헌에 기록된 ‘南漢志六卷 洪敬謨撰’이다. 여기서 ‘남한지’는 홍경모(1774~1851)가 1846년에 편찬한 13권 6책의 ‘重訂南漢志’를 의미하는데, 현재 전해지는 필사본의 표지에도 ‘南漢志’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뒤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내용의 교정이나 첨가에 가장 많이 참조된 『동국문헌비고』⁴⁾에는 없으면서 『증정남한지』에 수록된 내용이 다수 참고되었다. 광주목 산천 항목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太湖①又名菴池 在北十九里 ②濶百餘步 長十里 其西有小山 孤峙曰龜山

太湖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첨가한 내용이다. 그런데 세주에 기록된 ①번 내용은 『동국문헌비고』山川 양주에 나오지만 ②번 내용은 거기에 없는 대신 『증정남한지』山川에 기록되어 있다. 『동여편고』광주목의 산천 항목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문헌비고』에 없으면서 『증정남한지』에는 있는 것이太湖의 ②번 내용 이외에도 많이 첨가되어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武甲山[在東四十五里] 淨光山[武甲南支] 靈積山[武甲北支] 鼎蓋山[山研高秀 似鼎蓋故名] 養子山 禮賓山[本禮賓寺柴地故名 頂上一岩 四隅如斷橫 有書壯類碁局 故俗稱仙人彈碁處] 月川峴[又稱懸川 在清溪天臨之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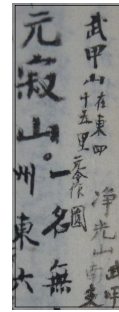


그림 5. 광주목에 첨가된 武甲山과 淨光山

따라서 『동여편고』의 편찬자가 홍경모의 ‘증정남한지’를 입수하여 참고하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1846년 이후에도 교정·첨가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기초해 판단하면 『동여편고』는 순조 때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과 내용을 생략한 채 작성한 뒤 교정과 첨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순조 이후인 현종(재위: 1834~1849) 때 도 어느 정도의 양인지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교정과 첨가 작업이 이루어졌다. 다만 1823년의 풍덕 혁파 사실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22년(순조 22)에 신설되는 함경도의 후주도호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일부 불완전한 측면도 보이고 있다.

4) 참고문헌

앞서 언급했듯이 『동여편고』 각 면의 여백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교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가한 흔적이 너무나 많다. 게다가 교정한 내용을 2~3차에 걸쳐 다시 교정한 흔적까지 있으며, 종이를 덧붙이거나 붉은색을 사용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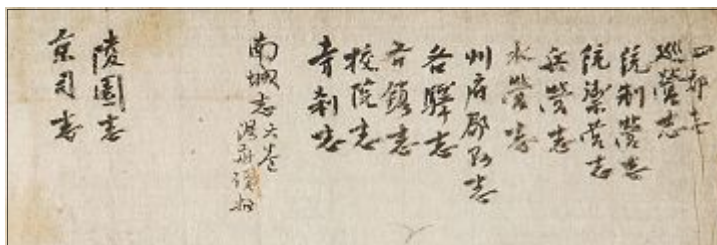


그림 6. 『동여편고』 표지 뒷면의 참고문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어떤 자료에 입각하여 몇 번에 걸쳐 이루어졌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작업은 너무 양이 방대하여 쉽지 않은 일인데, 표지의 뒷면에는 참고문헌으로 보이는 ○○지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四都志 巡營志 統制營志 統禦營志 兵營志 水營志 州府郡縣志 各驛志 各鎮志 校院志 寺刹志 南漢志六卷 洪敬謨撰 陵園志 京司志

四都는 지방 고을에 파견하던 外職이 아닌 內職인 정2품의 留守를 파견했던 개성부·강화부·화성부(수원)·광주부 4개를 의미한다. 巡營은 道에서 가장 높은 종2품의 관찰사가 파견된 監營을, 統制營은 현재의 통영에 있었던 종2품의 三道水軍統制使營을, 統禦營은 현재의 교동에 있었던 三道統禦營을 의미한다. 兵營은 육군을 지휘하던 종2품의 병마절도사영을, 水營은 수군을 지휘하던 정3품의 수군절도사영을 의미한다.

州府郡縣은 일반 고을을 대표하는 용어이며, 驛은 중앙과 지방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던 기관이고, 鎮은 군사기지를 의미한다. 이밖에 校院은 향교와 서원을, 陵園은 왕실의 무덤을, 京司는 서울에 있던 관청을 총칭하던 이름이다. 그리고 南漢志는 홍경모(1774~1851)가 1846년에 편찬한 『중정남한지』란 광주부의 사찬 읍지이다.

결국 표지 뒷면에 기록된 ‘○○志’들은 南漢志를 제외하면 당시 행정·군사·문화적인 측면에서 작성될 수 있는 地誌의 종류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各驛志와 各鎮志라는 이름은 ‘각 역의 지리지’, ‘각 진의 지리지’란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표지 뒷면에 쓰인 ‘○○志’ 중 南漢志를 제외한 13개는 『동여편고』의 편찬자가 기본 항목과 내용을 교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지지의 종류를 열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표지 뒷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국문헌비고』 계통을 주로 참조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곳곳에 나온다. 하나의 예로 영조 27년인 1751년에 읍치를 옮긴 楊根郡의 건치연혁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동여편고』 양근군의 건치연혁 가장 뒤쪽과 위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효종 9년에 혁파하여 지평에 속하게 했고, 현종 9년에 다시 두었다. 영종 4년에 현으로 강등시켰으며, 17년에 다시 (군으로) 복구시켰다. 정종 초년에 다시 (현으로) 강등시켰고, 9년에 다시 (군으로) 복구시켰다. 치소는 옛날에 건지산에 있었는데, 영종 27년에 갈산으로 옮겼다. (孝宗九年[革]屬于砥平 顯宗九年復置 英宗四年降[爲]縣 十七年復舊 正宗初年復降 九年復舊[郡] 治舊在乾止山 英宗二十三年移[置]于葛山)

* []는 나중에 다시 첨가해 넣은 글자임.

『동여편고』 양근군에 첨가된 효종 이후의 건치연혁 및 읍치 이동에 대한 내용은 『여지도서』(1765년경) 양근군의 건치연혁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글자의 구성이 다르다. 반면에 『동여편고』의 편찬자가 나중에 다시 첨가해 넣은 []의 글자를 제외하면 『동국문헌비고』 「여지지」 군현연혁의 양근 부분에 글자의 구성까지 거의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동국문헌비고』 「여지지」는 申景濬(1712~1781)이 편찬하여 1770년(영조 46)에 활자본으로 간행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정조를 의미하는 정종 초년(1776)이나 9년(1785)의 기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국문헌비고』는 1770년(영조 46)에 13考 100卷 40冊의 활자본으로 간행되며, 1782년(정조 6)에 李萬運(1723~1797)을 기용하여 증보하도록 한다. 그 작업이 1790년(정조 14)에 일단락되어 20고 146권으로 완성되지만 활자로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이후에도 이만운이 죽을 때까지 증보 작업이 계속되며, 그가 죽은 후에도 아들인 李儒準에 의해 보완되어 1809년에 20고 246권 66책의 『增訂文獻備考』로 완성되는데, 이 역시 활자로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이만운과 그의 아들 이유준에 의해 증보된 내용 대부분이 1903년에 찬집청을 설치하여 박용대 등이 16고 250권으로 증보·편찬하여 1908년에 간행한 『증보문헌비고』에 수록되어 있다. 1790년에 일차로 완성될 때 증보된 것에는 ‘補’를, 1790년 이후부터 변화된 내용을 증보한 것에는 ‘續’을 써 넣어 구분해 주었는데, 그런 표시가 없이 내용적으로 구분하도록 한 부분도 있다.⁵⁾

앞의 인용문에 나오는 정조 때의 내용은 ‘初’를

‘丙申(1776)’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면 『증보문헌비고』 「여지지」 군현연혁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여지편고』의 편찬자는 1790년에 증보되거나 아니면 1790년부터 1809년 사이에 증보된 『증정문헌비고』를 참조했음을 알 수 있다. (본 글에서 ‘증정문헌비고’라는 특별한 언급이 없이 ‘동국문헌비고’라고만 쓰여 있을 경우는 1770년에 간행될 때부터 계속 있었던 내용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동여편고』 양근군의 산천 항목 여백에 첨가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飛隴山[在郡東十里] 高達山[一名鶴達 在郡北四十里] 黃巖山[在高達山西] 中隱山[又稱青帝 在郡西北三十里 我朝申孝章 以爲五埧山中脈 隱於此故名之] 漢江[在郡南一里 自呂州流入 入廣州 新淵江[郡西五十里 自[加平來] 五十里 經郡境 [流] 入漢江] 洪川江[郡北四十五里] 迷原川[在郡北四十里] 新銀川[在郡南十里] 新橋川[在郡北十里] 自銀灘[在郡北四十里] 大野川[在郡西二十五里 源出馬峴山 入新淵江]

* []은 나중에 다시 첨가해 넣은 글자, 밑줄은 첨가했다가 지운 글자임.

앞에 열거한 산들은 모두 『신증동국여지승람』 양근군의 산천 항목에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동국문헌비고』 산천의 양근 부분에는 나오고 있으며, 제주 역시 『동국문헌비고』의 것과 동일하다. 물론 『여지도서』 양근군의 산천 항목에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동여편고』의 편찬자가 『동국문헌비고』를 참조하여 첨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場市, 姓氏의 시조 등 여백에 첨가된 내용의 상당수가 『동국문헌비고』에 있는 것이며, 이런 경향은 양근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고을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증정남한지』와 비교하면서 확인했듯이 『동국문헌비고』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요약하자면 『동여편고』의 편찬자는 첫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항목과 내용을 기초로 편집한 후 주로 『동국문헌비고』의 내용을 참조하여 대대적인 교정과 첨가를 행하였다. 둘째, 『증정남한지』에서 확인되었듯이 『동국문헌비고』에 없는 새로운 자료가 확보되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정과 첨가를 행하였다. 앞으로 이 시기의 지지 자료를 최대한

수집한 후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비교·검토해야 좀더 구체적인 실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여편고』의 편찬자 : 양주의 읍치 이동 기록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인물 중 순조(재위: 1800~1834)와 헌종(재위: 1834~1849) 때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오랜 시간 동안의 비교·검토를 거쳐 고을별 전국지지를 편찬한 사람으로 金正浩(추정: 1804~1866)가 있다. 그의 단독 작품으로는 1834년~1843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연구된 『東輿圖志(1)』 20책(3책 결본)과 1851년~1856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연구된 『동여도지(2)』 3책 등 2종, 1861년 이후에 편찬된 『大東地志』 15책(일부 미완) 1종이 있고, 최성환과의 공동작품으로 1853년과 1861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연구된 『輿圖備志』 20책(3책 결본) 1종이 알려져 있다. (이상태 1988; 1991; 양보경 2001)

『동여편고』의 편찬과 교정·첨가가 순조 때 시작되어 헌종 때까지 지속되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김정호(추정: 1804~1866)의 전국지지 편찬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동여편고』와 『동여도지』·『여도비지』·『대동지지』

조선시대에 편찬된 양주 관련 지지 중 『동여도지(2)』, 『여도비지』, 『대동지지』 양주의 건치연혁에만 발견되는 정보가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조 태조 3년(1394) 이곳(한양의 읍치)에 수도를 정하고 따로 양주의 읍치를 아차산의 남쪽(襄嶺山之陽)으로 옮기고 양주라 칭하였고[知州事를 두었다]. 얼마 되지 않아 府로 승격시켰다. 6년(1396)에 다시 건주옛터(見州古址)로 옮겼고, 태종 13년(1413) 도호부로 고쳐 경기우도에 속하게 했으며, 세조 12년 목으로 승격시켜 鎭을 설치하였다[일곱 개 고을 관할 하였다]. 연산주 10년(1504) 본 고을을 혁파시켰다가[그 땅(중심지)을 비워 (임금이) 놀러가는 곳으로 만들었으며, 나머지 땅은 나누어 인근 고을에 편

입시켰다 중종 원년(1506)에 다시 두고 후에 읍치를 불곡산의 남쪽으로 옮겼다. (『동여도지(2)』 양주목 건치)

본조 태조 3년(1394) 이긋(한양의 읍치)에 수도를 정하고 양주의 읍치를 아차산의 남쪽(巖嵯山之陽)[지금 古楊州面이라 칭한다]으로 옮겨 다시 知楊州事로 삼았고, 얼마 있지 않아 府로 승격시켰다. 6년(1396)에 다시 견주엿터(見州古址)[지금 古州內面이라 칭한다]로 옮겼고, 태종 13년(1413) 도호부로 고쳤으며, 세조 12년 목으로 승격시켜 鎭을 설치하였다. 연산주 10년(1504) 본 고을을 혁파시켰다가 중종 원년(1506)에 다시 두고 후에 읍치를 불곡산의 남쪽으로 옮겼다. (『여도비지』 양주목 건치)

본조 태조 3년(1394) 한양(즉 옛양주(古楊州)다)에 (수도를) 정해 한성부라 고쳐 설치하였다. 별도로 한양부를 東村 大洞里[지금 아차산의 남쪽을 고양주면이라 부른다]로 (옮겨) 설치하고 知楊州事로 강등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府)로 승격시켰고, 6년(1396)에 다시 견주엿터(見州古址)로 옮겼다. 태종 13년(1413) 도호부로 고쳤고, 세조 12년 목으로 승격시켜 鎭을 설치하였다[7개 고을을 관할했는데, 지금은 (그 중) 파주가 빠졌다]. 연산주 10년(1504) 본 고을을 혁파시켰다가[그 땅(중심지)을 비워 (임금이) 놀러가는 곳으로 만들었으며, 나머지 땅은 나누어 인근 고을에 편입시켰다] 중종 원년(1506)에 다시 복구시켰다[고을의 중심지를 불곡산의 남쪽으로 옮겼다]. (『대동지지』 양주 건치연혁)

1394년 한양의 읍치에 수도를 정한 후 한양부를 東村 大洞里로 옮겼고, 1396년에 다시 견주엿터(見州古址)로 옮겼다는 내용은 『세종실록지리지』(1454)·『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등 조선전기의 전국지지만 아니라 조선후기의 모든 양주 관련 읍지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1504년 고을을 혁파시켰다가 1506년에 복구시키면서 읍치를 불곡산 남쪽으로 옮겼다는 내용은 『동여도지(2)』, 『여도비지』, 『대동지지』에서만 나타난다.

坊面이 수록된 양주 관련 조선후기의 모든 고지도와 읍지에는 古州內面과 古楊州面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읍치를 두 번 옮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1394년 조선의 수도로 정

해진 한양의 읍치 지역은 이후 양주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주내면이나 고양주면이란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1394년과 1396년 두 번의 읍치 이동 기록만으로는 고주내면과 고양주면과 같이 ‘古’자가 들어간 면의 이름이 두 개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김정호도 앞과 같은 사실을 간과하면서 1394년과 1396년 이외에 또 한 번의 양주의 읍치 이동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504년 연산군이 도성으로부터 100리 안에 금표(禁標)를 세우고 그 안에 있던 양주를 혁파시켰다가 중종반정(1506)으로 원래대로 회복시킬 때 양주의 읍치를 불곡산 남쪽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첨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1504년 양주의 혁파 사실은 맞지만 1506년 양주의 읍치 이동은 없었다(이기봉 2011).

김정호의 이와 같은 오류는 1394년 양주의 읍치가 옮겨갔던 ‘동촌 대동리’에 “지금 아차산의 남쪽을 고양주면이라 부른다”란 잘못된 내용의 세주를 붙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1396년에 옮겨간 견주엿터를 『여도비지』 양주의 건치에서는 古州內面 지역으로 보게 만들었다. 『동여도지(2)』와 『대동지지』 양주의 건치연혁에는 견주엿터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古邑 항목 見州의 세주 끝에 “지금은 古州內라 칭한다”와 “지금은 고주내면(今古州內面)”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고주내면은 현재의 양주시 고읍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1394년 한양부의 읍치가 수도로 정해진 후 읍치를 옮겼다가 1396년에 불곡산의 남쪽인 현재의 양주시 유양동의 견주엿터로 다시 옮겨갔던 역사성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현재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을 중심으로 있었던 고양주면은 1067년 양주가 南京留守官으로 승격될 때 읍치가 광장동 지역에서 조선시대의 도성 지역으로 옮겨갔던 역사성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김정호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안에서 읍치 이동을 한번 더 설정하려 하였고, 그 결과 앞과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이기봉 2011).

반면에 『동여도지(1)』 양주목의 연혁 부분에는 1506년 읍치를 불곡산 남쪽으로 이동시켰다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 『동여도지(2)』, 『여도비지』, 『대

동지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1394년 양주의 읍치가 옮겨간 동촌 대동리의 세주에 “지금의 아차산 남쪽(今峨嵋山之陽)”이라는 문구는 기록되어 있어 뒤의 세 지리지와 동일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동여도지(2)』 양주목 古邑 항목의 見州 위쪽 여백에 “ 지금은 古州内라고 칭한다(今稱古州内)”라는 문구가 첨가되어 있다. 이것은 『동여도지(2)』의 내용을 처음 쓸 때는 견주와 古州内面을 등치시키지 않았지만 다른 자료를 참조하면서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여도지(2)』를 교정할 시기에 1394년과 1396년 이외에 또 한번 양주의 읍치 이동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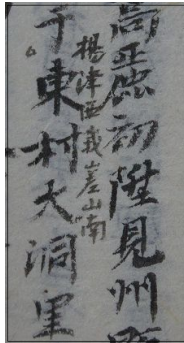


그림 7. 東村大洞里에 첨기된 “楊津西峨嵋山南”

『동여편고』 양주목 건치연혁의 ‘東村大洞里’ 오른쪽에도 작은 글씨로 “양나루 서쪽 아차산 남쪽(楊津西峨嵋山南)”이라는 문구가 첨가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고을별로 편찬된 18세기 이후의

양주 관련 지지 중 김정호의 작품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동여편고』와 김정호의 작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주목의 읍치 이동에 대한 이해의 흐름이 『동여편고』와 김정호의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본 것이 <표 2>다.

<표 2>에 나타난 흐름을 순서대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여편고』를 최초로 구성할 때는 양주의 읍치 이동에 대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그대로 따랐다. 둘째, 『동여편고』의 교정 때 ‘대동리=아차산 남쪽’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는데, 동일한 내용이 『동여도지(1)』의 최초 구성 때 본문에 반영되어 있다. 셋째, 『동여도지(1)』의 교정 때 조선시대 동안 한 번의 읍치 이동이 더 있었다는 전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견주엿터=고주내면’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다. 넷째, 세 번째의 인식이 『동여도지(2)』·『여도비지』·『대동지지』의 편찬 때 본문에 반영되었다.

편찬과 교정 시기의 순서에 따라 양주의 읍치 이동에 대한 인식의 흐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동여편고』의 편찬자가 김정호일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다른 자료를 통해 이를 보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동국여지지』·『동국문헌비고』와 『동여편고』·『동여도지』

그러면 김정호는 처음에 어떤 자료에 입각하여 기존과 전혀 다르게 양주의 읍치 이동에 대해 이

표 2. 양주의 읍치 이동에 대한 서술 경향

		편찬시기 (추정)	대동리= 아차산 남쪽	견주엿터= 고주내면	1506년 읍치 이동
동여편고	최초 구성	1834 이전	×	×	×
	교정		○	×	×
동여도지(1)	최초 구성	1834~1843	○	×	×
	교정		○	○	×
동여도지(2)		1851~1856	○	○	○
여도비지		1853~1856	○	○	○
대동지지		1861~1866	○	○	○

해하면서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된 것일까? 『여지도서』(1765년경), 1800년대 전반기에 편찬된 「楊州郡邑誌」⁶⁾, 1842~1843년경에 편찬된 『京畿誌』⁷⁾와 1871년에 편찬된 『京畿邑誌』⁸⁾에 수록된 양주목읍지 등 18세기 이후에 편찬된 고을별 전국지리지와 도별 지리지 속의 양주 읍지 또는 양주 단독의 읍지 중 김정호처럼 양주의 읍지 이동을 이해한 경우는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조선전기의 작품인 『세종실록지리지』(1454)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효종(재위 1649~1659) 때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의 삭제와 교정을 거쳐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東國輿地志』 양주목의 고적 항목에서 양주의 읍지 이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古楊州 : 양나루 서쪽 아차산 남쪽(楊津西峩嶺山南) 大同里⁹⁾에 있는데, 본조 태조 3년(1394) 지금의 京都로부터 이곳으로 양주(의 읍치)를 옮기고 知楊州事로 강등시켰다. 얼마 되지 않아(尋) 또 지금의 읍치(今治)로 옮기고 그 땅을 비워 直村里로 만들었다.

앞의 기록에서는 1394년 한양부의 읍치에 수도를 정한 후 첫 번째로 옮겨간 양주의 읍치를 현재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지역인 ‘양나루’¹⁰⁾ 서쪽 아차산 남쪽(楊津西峩嶺山南)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또 ‘지금의 읍치(今治)’로 옮겼다고 되어 있는데, 산천 항목에 佛谷山이 “읍치의 북쪽에 있는데 鎭山이다(在北三里鎭山)”라고 기록해 놓아 ‘지금의 읍치’는 불곡산 남쪽에 있던 현재의 양주시 유양동이다. 만약 불곡산의 정 동쪽에 있던 고주내면의 양주시 고읍리에 읍치가 있었다면 불곡산이 읍치의 서쪽에 있다고 표현해야 한다.

『동국여지』의 편찬자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달리 첫째, 1394년에 옮겨간 양주의 읍치를 ‘양나루 서쪽 아차산 남쪽’이라 생각하였고 둘째, 현재의 양주시 유양동으로 옮겨간 시기를 1396년이라고 확정짓지 않고 1394년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尋)’라고 하였다. 물론 1394년에 옮겨간 양주의

읍치를 ‘양나루 서쪽 아차산 남쪽’이라고 이해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다만 『동국여지』에는 조선시대 안에서 양주의 읍치 이동이 두 번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도, 1506년 양주의 읍치 이동이 있었다는 내용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동국여지』와 동일한 내용이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균현연혁의 조선시대 양주 부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楊州 : 태조 때 양주의 읍치에 수도를 정하고 읍치를 양나루 서쪽 아차산 남쪽(楊津西峩嶺山南) 大洞리로 옮겼다가 얼마 되지 않아(尋) 또 지금의 읍치(今治)로 옮겼다.

문장의 순서나 글자만 바뀌었을 뿐 양주의 읍치 이동에 대해 『동국여지』와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의 기록은 동일하다. 그런데 1770년 국가적인 사업으로 「여지고」를 편찬한 신경준은 당시 관부에 보관되어 있던 『여지도서』(1765년경)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지도서』에는 앞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고 『동국여지』나 그 계통의 필사본에 기록된 내용을 신뢰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동여편고』의 ‘동촌대동리’ 옆에 작은 글씨로 쓴 “楊津西峩嶺山南”이 앞의 두 기록과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동여편고』의 편찬자가 『동국여지』 계통에서 『동국문헌비고』 「여지고」로 이어진 “楊津西峩嶺山南”이란 기록을 보고 첨가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기록 계통에서는 1506년에 양주의 읍치 이동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동여편고』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古州內面과 古楊州面 등 ‘古’자가 들어간 면의 이름이 2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양주의 읍치 이동이 1394년 아차산 남쪽의 광진구 광장동 지역으로, 1397년 불곡산 남쪽의 양주시 유양동으로 2번만 있었다고 보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서술했듯이 1394년까지 있었던 양주의 읍치는 수도인 한성부가 되었기 때문에 양주의 영역 안에 편제될 수 없다. 따라서 1394년과 1397년의 읍치 이동만으로는 ‘古’자가 들어간 면

의 이름이 1394년에서 1397년까지 있었던 구읍치 지역에 1개밖에 만들어질 수 없다.

다행히 『동국여지』에는 면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편찬자는 앞과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동국문헌비고』 「여지」에도 면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찬자인 신경준 역시 앞과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동여편고』의 양주목 위쪽 여백에는 ‘三十九面’이란 문구가 첨가되어 있어 편찬자가 면의 정보를 참조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면의 이름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아 『동여편고』 양주목의 내용만으로는 ‘古’자가 들어간 면이 2개 있음을 알 수는 없다.

양주목의 읍치 이동에 관한 한 『동여편고』와 동일한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김정호의 『동여도지(1)』에는 坊面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古州內面[在州東二十五里]’와 ‘古楊州面[在東南八十里]’ 및 읍치가 포함된 ‘州內面[即邑內近地]’도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검토했을 김정호는 ‘왜 고주내면과 고양주면이 2개나 있게 되었을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古邑 항목의 見州 위쪽에 ‘今稱古州內’이라는 문구가 첨가되어 있어 김정호가 『동여도지』를 편찬한 후 앞과 같은 고민을 하면서 건주의 옛터가 고주내면 지역이라 생각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김정호의 이와 같은 판단은 양주의 읍치 이동이 1394년과 1397년 이외에 한 번 더 있어야 뒷받침될 수 있다. 하지만 『동여도지(1)』 양주목의 연혁과 고읍 항목의 見州 어디에도 1394년과 1397년 이외의 읍치 이동에 대한 첨가 내용은 없다. 따라서 『동여도지(1)』의 교정 때 건주를 고주내면 지역이라고 본 김정호의 판단이 지속되려면 양주의 읍치 이동이 한 번 더 있었다는 논리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 김정호는 그 단초를 1530년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할 때 양주목의 건치연혁에 첨가한 다음의 기록에서 찾았다.

연산군 갑자년(1504)에 본 州(의 읍치)를 혁파하였는데, 그 땅을 비워 遊幸하는 곳으로 삼았으며, 나머지 땅을 나누어 인근의 고을에 속하게 했다. 지금 임금(중종) 초년에 다시 두었다. (燕山甲子革本州 空其地爲遊幸之所 割餘地分

屬傍邑 今上初年復置)

이 내용은 『동여편고』의 양주목 건치연혁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동여도지(1)』의 양주목 연혁에는 ‘今上初年’이 ‘中宗元年(1506)’으로만 바뀌고 나머지의 내용은 동일하다. 그리고 드디어 『동여도지(2)』 양주목의 건치 항목에 “중종 원년(1506)에 다시 두고 후에 읍치를 불곡산의 남쪽으로 옮겼다(中宗元年復置 後移置于佛谷山之陽)”는 내용이 수록된다. 결국 양주의 읍치가 1506년에 건주옛터에서 불곡산의 남쪽으로 옮겼다는 잘못된 이해가 나타나게 된 고민의 흐름을 추적해 보면 『동국여지』→『동국문헌비고』 「여지」→『동여편고』→『동여도지(1)』→『동여도지(2)』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된다.

3) 『동여편고』의 편찬자에 대한 소결

경기도 양주목의 읍치 이동에 대한 이해의 큰 흐름을 기준으로 볼 때 『동여편고』의 편찬자가 김정호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덧붙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동여편고』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기초로 기본 항목과 내용을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항목에서 기문을 포함한 유래 관련 세주를 대폭 생략하였고 형승·명환·인물·제영 등은 아예 항목까지 없었다. 그런데, 이는 『동여도지(1)』뿐만 아니라 『동여도지(2)』·『여도비지』·『대동지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李圭景(1788~1856)도 『五洲衍文長箋散稿』 「地志辨證說」에서도 “지리지 20권을 저술했는데, 『동국여지승람』을 취해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시문을 삭제하여 없는 것과 소략함을 보충했으니 또한 매우 해박하다”라고 김정호의 『동여도지(1)』를 평가했다.

둘째, 김정호의 마지막 전국지지 작품인 『대동지지』에는 많은 引用書目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동여편고』에서 주로 참조했음이 확인된 ‘輿地勝覽[國朝盧思慎徐居正撰]’, ‘文獻備考[英宗庚寅(1770)原 正宗壬子(1792)續]’, ‘南漢志[國朝洪敬謨撰]’이 기록되어 있다. 순조와 헌종 때 『동국여지승람』을 기초로 하면서 『동국문헌비고』를 포함한

여러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교정·첨가하여 새로운 전국지지를 편찬한 사람은 김정호밖에 없다.

결국 앞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동여편고』가 김정호의 작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4. 맺음말 - 김정호 지리지의 연구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동여편고』(한古朝60-75책)의 구성과 내용 및 교정·첨가 경향을 간단하게 정리·소개하였고, 편찬자가 누구인지를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김정호가 순조(재위: 1800~1834) 때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한 채 편집한 후 주로 『동국문헌비고』를 이용하여 교정·첨가하였고 현종(1834~1849) 때에도 『중정남한지』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교정·첨가가 이루어진 작품일 가능성이 아주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호의 첫 번째 지리지 작품으로 연구된 것은 1834년~1843년 사이에 편찬된 『동여도지(1)』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교정의 흔적뿐만 아니라 여백에 여러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 서문을 쓰는 1861년까지도 지속적으로 교정·첨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동여도지(1)』에 수록된 교정 전의 본문조차도 하나의 자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하여 여러 자료를 비교·검토한 후 선택 과정을 거쳐 정서한 내용이다.

따라서 김정호가 『동여도지(1)』의 편찬 이전에도 상당한 수준으로 지리지의 수집·정리 및 비교·검토 작업을 진행시켰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해 주목하지는 못해 왔는데, 여기서 崔漢綺(1803~1877)가 1834년에 김정호의 《靑邱圖》에 직접 써준 「靑邱圖題」의 다음 문구를 다시 한 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나의) 벗 김정호는 나이가 동관(童冠)일 때부터 지도와 지리지에 깊이 뜻을 두고 오랫동안 찾아 열람하여, 여러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자세히 살폈다

그 동안 일반인까지도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

는 이미지적 장점 때문에 《대동여지도》와 《청구도》 등 김정호의 지도 작품 대한 연구에 주로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한기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김정호에게 지도와 지리지는 같이 가는 것이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었다. 또한 이러한 지도와 지리지에 대한 관심과 수집·비교·검토의 과정은 막 성인이 될 무렵을 표현한 童冠의 나이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최한기가 「청구도제」를 쓴 1834년에 김정호의 나이가 30세 안팎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도》를 제작하기까지 지도와 지리지에 대한 10년 안팎의 연구가 있었던 것이 된다. 앞으로는 이 시기 동안 김정호가 지도와 지리지에 대해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리지 편찬의 역사에서 갖고 하는 『동여편고』의 학술적 가치는 바로 이 시기 동안 김정호가 어떤 정보를 수집·비교·검토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게 담겨 있다는 점이다.

단독 작품인 『동여도지(1)』·『동여도지(2)』·『대동지지』와 공동 작품인 『여도비지』 등 김정호의 지리지는 많은 자료의 수집과 비교·검토 및 선택의 과정을 거쳐야 편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 못지않게, 아니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도만큼 큰 관심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순조(재위: 1800~1834) 때 기본적인 편찬 작업이 시작된 『동여편고』의 발견을 통해 김정호의 지리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만 본 연구는 내용적 측면에서 『동여편고』의 편찬자를 추정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대동지지』·『대동여지도』 등 김정호가 직접 쓴 것이 분명한 작품과의 필체에 대한 비교·분석이 있어야만 『동여편고』의 편찬자에 대한 더욱 분명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김정호의 지리지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은 그가 지리지를 편찬하기 위해 참고했던 자료의 조사와 수집 및 비교·검토임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편찬자와 편찬시기까지 기록한 『대동지지』의 引用書目인 중국 서적 12종, 조선 서적 43종에 대한 조사와 내용에 대한 꼼꼼한 비

교·검도임을 강조하면서 글을 갈무리하고자 한다.¹¹⁾

주

- 1) 두 번째의 '閒'은 원래 동일한 한자를 표시하는 기호로 되어 있으며, 한자의 추정 판독에는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이태호 교수님의 자문이 있었다.
- 2) 본 글에서 참조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969년에서 1978년까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편집·간행한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인데, 앞쪽에는 국역본이 뒤쪽에는 한문 원본의 축소본이 수록되어 있다.
- 3) 『순조실록』 등 본 글에서 언급하는 조선왕조실록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참조하였다.
- 4) 본 글에서는 1903년 찬집청을 설치하여 박용대 등이 증보한 16고 150권의 『증보문헌비고』를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국역한 『국역 증보문헌비고』를 참고하였는데, 앞쪽에는 국역본이, 뒤쪽에는 한문 원본이 수록되어 있다.
- 5) 네이버 지식사전 '증보문헌비고' 참조.
- 6)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京畿道邑誌』 二, 559쪽.
- 7)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2006, 『邑誌』十 京畿道 ①, 아세아문화사, 4쪽.
- 8)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2006, 앞의 책, 390쪽.
- 9) 『동국여지』에만 大同里라 되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동국문헌비고』에는 大洞里라 기록되어 있다. 『동여편고』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大洞里라 되어 있고, 김정호의 다른 작품들도 모두 大洞里라고 나온다.
- 10) 양나루(楊津)는 광나루(廣津)과 동일한데, 원래 양나루라 불리다가 양주의 읍치가 옮겨간 후 점차 광나루로 바뀌었다. 조선시대에는 양나루란 이름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광나루라고 불렀다.
- 11) 『대동지지』의 인용서목은 다음과 같다. 중국 : 史記 前漢書 後漢書 三國志 晉書 南史 北史 隋書 唐書 宋史 遼史 金史 元史 明史 通鑑輯覽 明一統志 盛京志 廣輿記 開國方略 高麗圖經 文獻通考 朝鮮賦 / 조선 : 三國史記 高麗史 東國史略 東國通鑑 東史綱目 歷代總目 東國遺事 周官六翼 國朝寶鑑 輿地勝覽 踏游諸略 大典通編 文獻備考 萬機要覽 華城志 南漢志 宋京志 江都志 關北志 關西志 湖南志 疆域考 渤海考 耽羅志 擇里志 燃黎誌述 燃黎典故 軍國總目 通文館志 西浦漫筆 燕岩外集 涪溪記聞 關北沿革考 朴氏溯源錄 尊周錄 耳溪集 水經 東國地理辨 地理群書 俎豆錄 程里表 臥遊錄 輿地圖

문헌

-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위원회(1969~1971).
- 국역증보문헌비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78).
- 大東地志, 金正浩, 한양대학교 부설 국학연구원 영인본(1976).
- 東國文獻備考, 국립중앙도서관(홈페이지 이미지 제공).
- 東國輿地志, 한국문화연구소 영인본(1983).
- 東輿圖志, 金正浩, 영국국립도서관.
- 東輿圖志, 金正浩, 영남대학교도서관.
- 東輿便攷, 국립중앙도서관(홈페이지 이미지 제공).
- 世宗實錄地理志,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 純祖實錄,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 輿圖備志, 崔晟煥·金正浩, 한국인문과학원 영인본(1998).
- 輿地圖書,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1979).
- 五洲衍文長箋散稿, 李圭景, 고전간행회 영인본(1959).
- 重訂南漢志, 洪敬謨, 국립중앙도서관(홈페이지 이미지 제공).
- 靑邱圖, 金正浩, 국립중앙도서관(홈페이지 이미지 제공).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go.kr/>)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istory.go.kr/>)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편, 2010, 선본해제 12 -지리지류-, 서울.
-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京畿道邑誌』二, 서울.
- 양보경, 2001, 고산자 김정호의 지리지 편찬과 그 의의,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보고서, 103-141.
- 이기봉, 2011, 고려시대 양주의 읍치 이동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23(3), 91-103.
- 이상태, 1988, 김정호의 삼대지지 연구, 손보기박사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517-550.
- 이상태, 1991, 조선시대의 지도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문화연구소 편, 2006, 『邑誌』十, 아세아문화사, 서울.

(접수: 2011.11.15, 수정: 2011.12.16, 채택: 2012.1.19)